

비즈 프리즘 | 진옥동 신임 신한은행장, '초일류 글로벌·디지털은행'을 말한다

디지털 혁신 위해 채용방식 바꾼다

조직·인력의 디지털 유목민화 강조
신흥국과 기축통화국, 투트랙 전략
리딩뱅크 위한 '고객중심 가치' 우선



진옥동 신임 신한은행장은 26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초일류 글로벌·디지털 은행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신한은행

진옥동(59) 신임 신한은행장이 취임 일성으로 '초일류 글로벌·디지털은행'을 내세웠다. 진 은행장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심포니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과 디지털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초일류 글로벌·디지털 은행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디지털 유목민화를 강조했다. 진 행장은 "과거 은행은 상경계 출신 인력을 뽑아

전환배치 인사를 통해 IT인력을 양성했다"며 "이제는 IT인력을 뽑아 영업점 사원으로 써야 할 정도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T개발과 디지털 직원 사무실을 얹고 이들 인력을 현업부서로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일본동인 만큼 글로벌 전환에 대한 포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제발전 속도와 가치에 따라 금융 니즈가 팽창하고 있는 신흥국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일본 등을 차별해 시장을 공략하자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진 행장은 "한국의 통화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기축통화 국가에서는 해당 기축통화를 조달할 수 있

는 풍부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신흥국의 경우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해 현지 은행과 조력차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베트남에 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캄보디아와 미얀마 진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끝으로 고객 중심의 가치창조를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리딩뱅크가 되기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고객"이라며 "은행의 전략과 추진 사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고객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신한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148.80	▲	+3.94
코스닥지수	736.81	▲	+9.60
日 닛케이 지수	2만1428.39	▲	+451.28
中 상하이 종합	2997.10	▼	-45.9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6	▼	-0.01
환율 (원/달러)	1135.5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8016.96	▼	-30.28

가스 병맥주 내달 4일부터 56원 인상

오비맥주는 다음달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는 500mL 기준으로 출고가가 현행 1147.00 원에서 1203.22 원으로 56.22 원(4.9%) 오른다. 오비맥주 출고가 인상은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해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애플과 디즈니까지...OTT '공룡들의 전쟁'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채널스·플러스 25일 공개
디즈니, 폭스 인수...넷플릭스에 도전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시장을 놓고 격돌한다. 애플과 디즈니 등이 연이어 OTT를 공개하면서, 업계 1위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냈다.

애플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OTT를 공개했다. 애플 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하는 '애플 TV 채널스'와 유명 배우와 감독 등이 참여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 '애플 TV 플러스'다. 애플 TV 채널스에선 HBO나 쇼타임 등 유명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날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직접 소개한 오리지널 콘텐츠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는 올 가을 론칭 예정이다.

이에 앞서 디즈니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OTT '디즈니 플러스'를 올해 말 내놓을 예정이다. 영화제작사 20세기폭스를 80조 원에 사들인 깜짝 빅딜도 OTT 사업을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볼 수 있다. 20세

기폭스 인수로 디즈니는 콘텐츠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OTT 업체 홀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애플과 디즈니의 참전으로 OTT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1위 업체 넷플릭스는 거센 도전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190여 개국에 걸쳐 1억 39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넷플릭스를 단기간에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SK텔레콤과 방송 3사의 제휴로, 양측은 OTT 사업 조직을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꽃 전시회서 봄의 설렘 느끼세요"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5월31일까지 유플렉스관 12층 문화홀과 13층 하늘정원에서 '더 플라워: 설렘충전소' 꽃 전시회를 진행한다. 꽃을 소재로 총 4개의 방과 22개의 공간에 사랑, 고백, 영원의 설렘이라는 테마로 꾸민 13층 야외 공간에는 플로리스트의 작품을 전시한 포토존을 운영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청와대 사랑채 '한국관광전시관' 재개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1층 '한국관광전시관'을 재개관한다. 새롭게 문을 연 한국관광전시관은 관광지로서의 청와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청와대로 떠나는 여행'과 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표관광지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한국으로의 여행'으로 구성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장애인, 어린이,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전시 관람을 배려한 공간 디자인과 시설 등에 신경을 썼다. 연간 심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렸다. 중국 및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관심 높은 '역대 대통령' 콘텐츠를 외국 정상 선물들과 함께 1층에 전시했다. 김재범 기자



"1분기 실적, 기대 이하"...삼성전자, 이례적 사전공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용의 예상실적 설명 자료를 26일 공시했다.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발표에 앞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원인은 '디스플레이·메모리 사업의 환율 약세' 때문. 디스플레이 사업은 LCD패널의 비수기 속에 중국 패널업체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공급 증가로 당초 예상 보다 가격 하락이 컸고, 플렉시블 OLED 대형 고객사 수요 감소와 저온폴리실리콘(LTPS) LCD와의 가격 경쟁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메모리 사업도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폭이 당초 전망보다 일부 확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술리더십을 기반으로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리소스 운용을 통한 원가경쟁력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등 핵심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자격증 합격생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합격 후 취업·개업은?... "인맥북을 활용하라"

공인중개사는 노후 대비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격증으로 취득 열기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다. 이렇듯 유망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이 교육기관 선택 시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합격 이후의 활용이다.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 달려지만 막상 합격을 하더라도 활용을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인맥이 없으면 취업, 개업 정보를 혼자서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 이후 '동문회'를 구성해 수험생의 합격 후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 및 실무 특강을 진행하며, 주기적으로 등산이나 봉사 등의 모임을 가진다.

최근 에듀윌 동문회 사무국이 이러한 사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한 에듀윌 출신 공인중개사 동문 리스트를 담은 '인맥북'을 발간했다.

에듀윌이 매년 발간 중인 공인중개사 인맥북은 많은 합격생들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맥북에는 제29회 공인중개사 합격생 외에도 이미 취업에서 활동 중인 선배 합격생들의 연락처가 함께 포함돼 선후배 간 네트워크 조성 및 실무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용이하다.

기존 7개 지부 규모에서 올해는 10개 지부가 수록되는 등 규모가 확대됐으며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최다 크기를 2년 연속 자랑하고 있다. 또한 지부별 행정구를 세부적으로 나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6	5		9			2		
		2	1			8		4
9				2		5		
		4	3			7		
3			8	7			5	
	8			2		1		
	4	3					6	
1		3			6	4		
8				1			3	7

		4			8		2		
			1	3		9			5
3						4		8	
	9	2		3			7		
6			5		7			4	
	3			6		5	9		
	2		8						7
8				7		2	9		
		3		5			4		

■ 스도쿠정답

2	8	9	4	1	6	9	2	8	7
6	8	4	9	5	2	3	7	1	4
1	9	2	8	7	3	5	4	6	8
8	4	1	6	2	9	7	8	5	3
5	2	7	7	4	8	6	1	3	9
7	8	1	3	5	4	9	2	6	8
9	5	8	2	9	7	1	6	4	3
4	6	8	5	9	1	2	3	7	4
2	1	7	3	6	4	8	9	5	1
2	4	8	9	5	6	3	1	7	4
1	8	6	2	4	7	9	5	8	3
7	9	3	1	8	4	7	2	6	5
8	6	7	4	2	1	5	9	3	8
9	4	7	6	7	3	1	8	2	5
3	1	2	5	8	9	6	4	7	1